

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rak
dongrak.kong@daishin.com

9월 FOMC: 말이 아닌 행동

- 美 기준금리 4.00%로 인상. 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인상, 만장일치
- 긴축이 아닌 “완화 정도의 제거” 추가적인 인상 시사, 연내 1회 더 인상 전망
-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물가 잡기. 본격적인 커브 플랫폼닝이 안정 신호

미 연준, 9월 기준금리 4.00%(상한 기준)로 25bp 인상

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인상이며, 기준금리가 변경된 것으로는 지난 1월 동결 전환 이후 8개월 만이다.

연준은 9월 15일~16일 (현지시각) 양일간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3.75%에 3.75~4.00%로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점도표를 통해 연준은 올해 추가 1회 인상을 시사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긴축이 아닌 “완화의 정도를 일부 제거”

9월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의견 대립이 상당했다. 물론 회의 직전 대거 인상을 쪽으로 의견이 쏠렸지만 불과 1주일 전까지도 인상과 동결을 주장하는 견해들이 서로 팽팽했다. 특히 이번 대립의 특징은 인상을 전망하는 쪽은 ‘물가 부담으로 인상 불가피’였던 반면 동결을 주장하는 쪽은 ‘물가 부담이 크지만 연준이 인상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양측 모두 인플레이션 부담은 함께 인정하나 연준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의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런 치열한 의견 대립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은 회의 직전 사실상 무력 시위에 가깝게 금리가 크게 상승했던 여파가 컸다. TB 10년 금리가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5%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연준의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컸다.

이에 연준은 실제 기준금리 인상함으로써 물가 안정 의지를 드러냈고, 관심을 모았던 워시 의장 회견 역시 시종일관 인플레이션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전개됐다. 이러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는 금리 결정 직후 함께 공개된 성명서에서도 그대로 찾을 수 있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그랬다”라며 “우리는 완화의 정도를 일부 제거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을 긴축이 아닌 완화의 제거라는 표현을 통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는 금리 결정과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6년 말 기준금리 전망이 이번 인상에 더해 1회 더 인상되는 것으로 전망된 것(중위값 기준 4.1%)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한 워시 의장은 지난 회의에서 적잖은 실수로 인식되고 있는 표현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변화를 줬다. 바로 금융 여건에 대한 진단으로 워시는 “금융여건이 긴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료들 역시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높아진 금리 수준으로 인해 금융 여건이 이미 긴축적으로 변화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비교할 때 긴장의 수위를 크게 끌어올린 발언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이미 지난 잭슨홀 연설에서 시장에 상황 인식이 달라졌음을 인정하는 메시지가 전달된 바 있으나 이번 회의에서 재확인됐다.

아울러 그는 “기조 인플레이션(코어 물가)이 목표를 향해 충분히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 결정은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물가에 대한 강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인식되는 포워드 가이드언스 주지 않겠다는 철학을 새삼 확인한 대목으로 보인다.

당사는 전임 파월 의장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자회견 시간과 성명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워시 의장이 그간 시장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온 ‘행동을 동반한 물가 안정 의지의 확인’이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며, 점도표 등을 통해 시사된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이에 당사는 올해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 수준(상한 기준 4.00%)에 비해 25bp 높은 4.25%가 될 것으로, 2027년에는 기준금리가 연간으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美 기준금리 26년, 27년말 각각 4.25%, 4.25% 전망).

짧은 성명서에도 강조된 물가 안정, “시의적절하게 목표치까지 되돌릴 것”

워시 취임 이후 대폭 줄어든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변경과 함께 문구 변화도 상당했다. 특히 물가를 목표치까지 시의적절하게 되돌리겠다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강조됐다.

성명서에서는 경기 판단과 관련해 “경제 활동은 확장되고 있다”는 내용은 유지됐으나 “부분적으로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문구가 더해졌다. 해당 내용은 지난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언급된 바 있다.

또한 “국내 소비가 탄력적이었다(domestic spending has been resilient)”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다. 아울러 “생산성 증가가 강력하고 자본 지출은 확고하다(Productivity growth is strong, and capital investment is robust)로 표현됐는데, 지난 회의에서의 “생산성 증가와 자본 지출은 강하다(Productivity growth and capital investment are strong)”에 비해 항목별로 구분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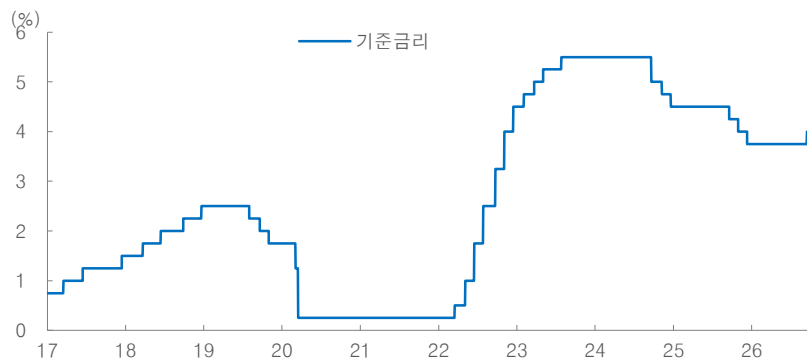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Inflation remains elevated)”며 “오늘 조치가 위원회의 물가 목표 2% 달성을 시의적절하게 뒷받침할 것(Today's policy action will support a timelier return to the Committee's 2 percent goal)”이라고 밝혔다. 지난 회의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 충격으로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표현만 있었다.

향후 금융시장 안정은 ‘본격적인 수익률곡선 평탄화’ 이후부터

당사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연준의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가 행동으로 확인된 만큼 9월 FOMC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연준 발(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이벤트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번 인상 이후에도 추가 인상 시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전반에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적인 간극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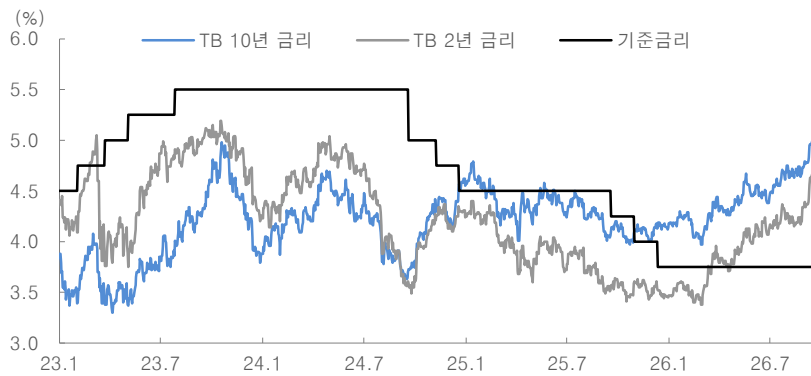
이에 당사는 최근 장기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촉발됐던 수익률곡선의 스틱프닝 국면이 해소되고 플래트닝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목할 것으로 권고한다. 이는 과거의 같이 통화정책 이벤트와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 시장금리의 동향이나 수익률곡선의 타입이 신속하게 결정됐던 상황에 비해 채권의 수급 여건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아졌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 1. 미 기준금리, 2026년 9월 4.00%(상한 기준)로 25bp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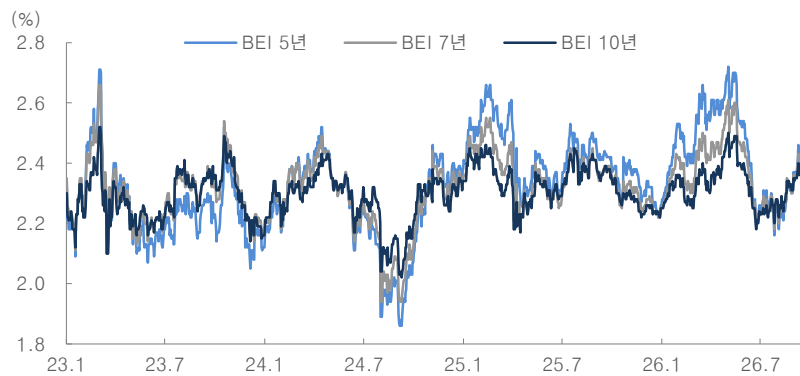
자료: F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미국 기준금리와 주요 국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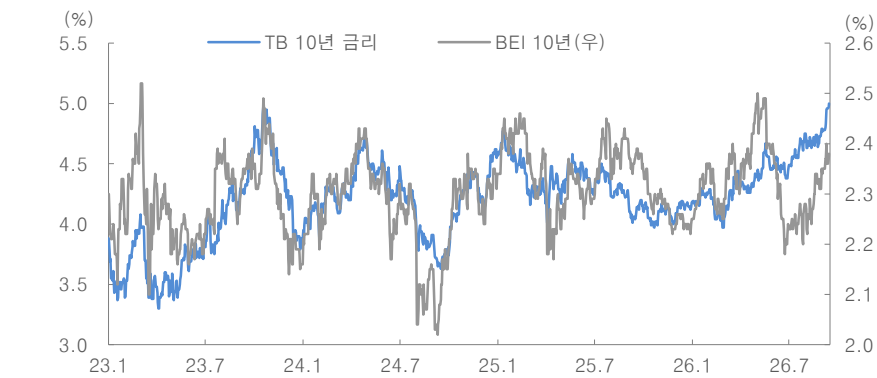
자료: Fed,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미국 만기별 기대 인플레이션(B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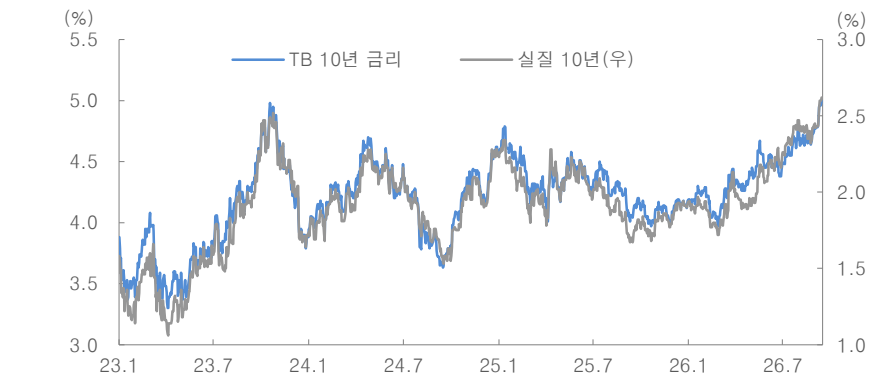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미국 TB 10년 금리와 BEI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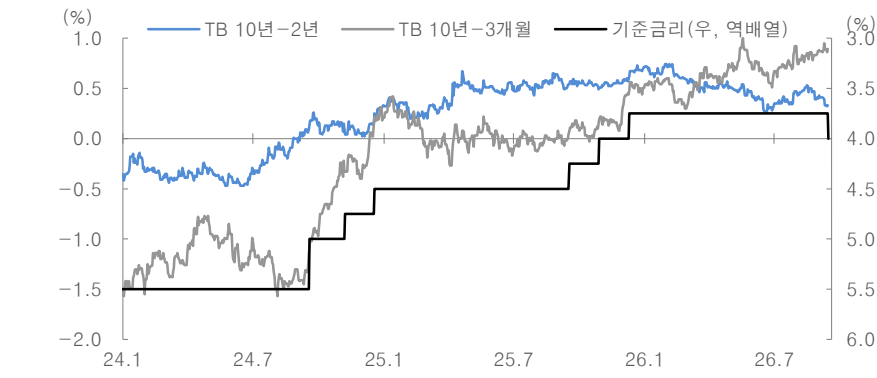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미국 TB 10년 금리와 실질금리 10년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미국 기준금리와 TB 10-2년, 10년-3개월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026년 9월 FOMC 성명서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approved the following statement for release by a 12–0 v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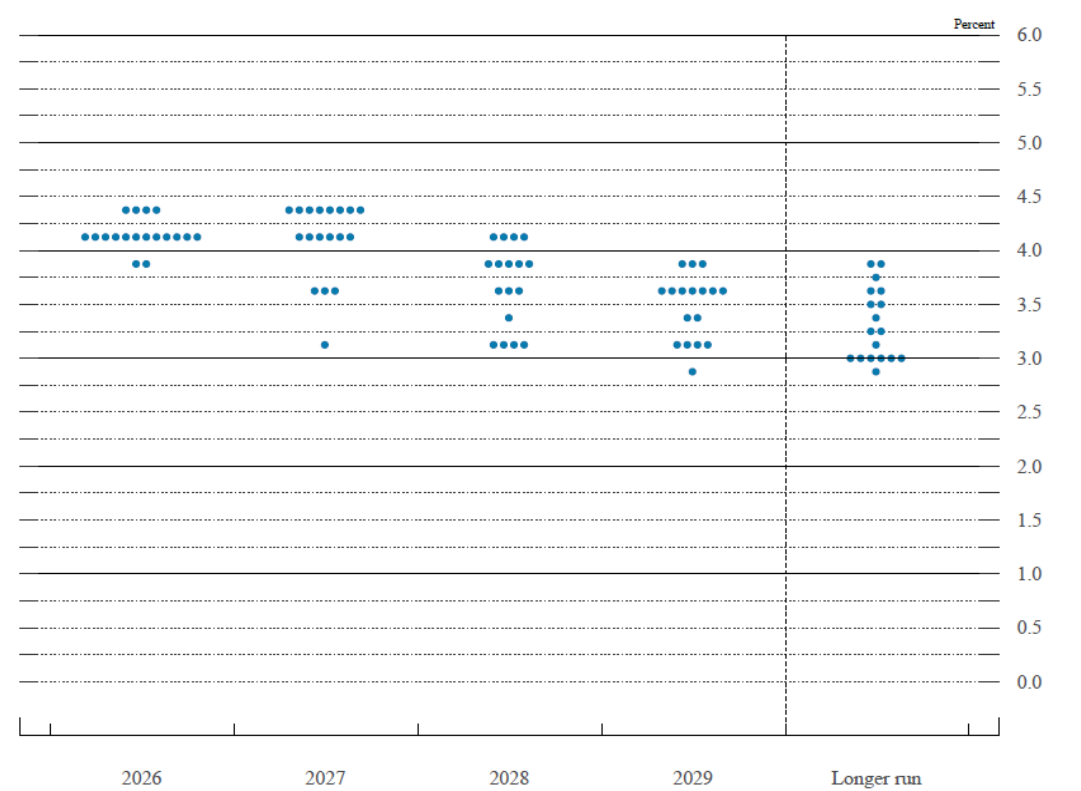
The Committee decided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to 3–3/4 to 4 percent, in support of the Federal Reserve's dual mandate. The Committee is continuing its policy of maintaining ample reserves in the banking system.

Economic activity is expanding at a solid pace. While uncertainty remains elevated owing, in part, to geopolitical developments, domestic spending has been resilient. Productivity growth is strong, and capital investment is robust. Job gains have kept pace with the workforce,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changed little.

Inflation remains elevated. Today's policy action will support a timelier return to the Committee's 2 percent goal. The Committee will deliver price stability.

자료: F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026년 9월 점도표



자료: F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